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오늘과 내일

송상용 · 주선희*

(한양대 · *환경교육센터)

환경오염의 뿌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지만 환경문제는 1960년대에 갑자기 세계적으로 떠올랐다. 선진 여러나라에서 붓물처럼 터진 환경에 대한 깨달음은 거의 때를 같이 해 후진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선진국들에서는 일찍부터 환경교육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로 환경파괴는 심각했는데도 경제건설에만 열을 올린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환경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환경교육은 공식교육과 비공식교육 또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 환경교육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 반영된 조직화된 교육이 시행되나 대학에서는 교육이 조직화되기 어렵다. 사회환경교육은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비공식적인 것이 특징이나 그 대신 다양한 내용을 보여 준다. 사회환경교육에는 정부 또는 기업이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들이 주도하는 계몽적인 것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기획하는 비판적,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1. 학교환경교육

한국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된 것은 스톡홀름 환경회의가 있는 이듬해 1973년 서울대학교에 환경대학원이 설치된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같은 해 시행된 제3차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환경문제가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교과서 편찬에서 환경문제의 반영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77년 한국교육개발원은 환경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고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잇달아 했다.

1980년 환경청이 발족하면서 정부가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81년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의 내용이 교과별로 포함되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7년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이 '국가사회가 강조하는 8대 중점사항'으로 포함되었다. 이제 환경교육은 특정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교과에 분산되기 시작했다. 1985년부터는 환경청의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시범학교가 지정, 운영되었다. 1988년에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중학교, 초등학교 한 학교씩 총 504개 학교가 환경보전 중점지도 학교로 지정되었다. 시범학교 운영결과는 평가회, 간담회를 거쳐 운영사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의 학교에 전달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가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었다.

1992년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다. 환경교육은 모든 관련교과에 걸쳐 중점 강조사항으로 지정되었고 별도의 독립교과목으로 설정되었다. 중학교는 환경, 고등학교에는 환경과학이 선택교과목이 되었다. 1997년 고시되고 2000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은 또 한번 큰 진전을 보였다.

<표 1> 중학교 환경 교과서의 내용 (교육부, 1998)

영역		내용
인간과 환경	인간과 환경	환경이란 무엇인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환경의 변화	인간 활동과 환경 변화 환경 보전과 개발
환경문제와 그 대책	자원은 생활의 원동력	인간 생활과 자원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자원의 사용량
	지켜야 할 생활환경	맑고 상쾌한 공기 깨끗하고 풍부한 물 다시 사용하는 쓰레기
	지구의 환경문제	더워지는 지구 줄어드는 삼림과 늘어나는 사막 지역 사라지는 생물종
환경보전	환경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동네에서
	쾌적한 환경 만들기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지구를 살리자

대학의 환경교육은 1970년대에 몇몇 대학이 교양과목으로서 환경에 관한 과목을 개설 하더니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대학으로 퍼져 나갔다. 강의 내용은 환경과학기술 자체를 소개하는 강의에서 철학적 접근, 환경사회학, 생태문학 등 다양하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에는 환경교육 강의도 개설되어 있다. 환경교육 독립학과가 있는 곳은 한국교원대학교뿐이었으나 몇 년새에 지방의 몇몇 대학에서 개설되었고, 많은 교육대학원들이 환경교육 전공을 두고 있어 전문가 양성을 돕고 있다.

2. 사회환경교육

보건사회부에서 독립해 설치된 환경청은 1986년부터 환경교육을 추진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정부가 주도한 환경교육은 공직자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조직, 산하단체, 언론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실시되었다.

초창기에는 한국자연보전협회, 환경보전 범국민운동 추진협의회 같은 관변단체의 활동이 중심이었고 소비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이 그 내용을 이루었다. 정부가 주도한 환경교육은 전반적으로 국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한 공로가 있으나 형식에 흘렀고 피상적 수준을 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기업의 환경교육 활동은 풀무원, 두산그룹, 포항제철 등이 두드러졌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에는 주요 언론기관이 일제히 환경보전 캠페인을 벌였다. 조선일

보의 쓰레기 줄이기, 자전거 타기, 셋강 살리기, 동아일보의 그린 스카우트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들의 캠페인은 5년도 못 가 대부분 중단되었고 한국일보의 녹색생명운동만이 199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언론사들의 환경교육은 국민의 환경의식을 일깨우는 데 이바지했으나 지속적인 효과는 없었고 환경문제의 본질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회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환경단체들의 활동이다. 199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에서 시작해 환경피해지역의 주민운동으로 변진 한국의 환경운동은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의 발족으로 1990년대에 크게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시민단체들의 환경교육은 제도권의 미지근한 환경교육과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YMCA의 생활환경 교육프로그램은 일찍부터 시작했고 그 규모도 전국적이다. 어린이 환경교육은 시청각자료, 놀이, 직접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친밀감, 환경보전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 중심이었다. 간단한 실험, 환경일기 쓰기, 환경보전 및 파괴실태 사진찍기 등이 포함되었다. 청년, 대학생 환경교육은 모의시민 환경법정, 지역환경신문, 환경통신원 등, 주부 환경교육은 자원재활용여행, 환경가계부 쓰기 등을 포함해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YMCA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교육과 강사 초빙에 이용했고 지역조직의 간부교육도 실시했다. 그러나 YMCA의 환경교육은 다른 환경단체와는 달리 관련단체의 활동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1991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태학교,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대학을 운영해왔다. 불교환경교육원은 성인을 대상으로는 가장 특색 있고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펴왔다. 생태학교는 10년 동안 20기를 배출했는데 6~8주간 13~15 강의와 1박 2일의 토론과 현장학습을 포함하고 있다. 다루는 주제는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다. 7~8회 강의로 이루어진 생명운동 아카데미도 15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제 21기 생태학교 이후 내부의 논의 등을 거쳐 이상의 생태학교는 열리지 않고 있다. 지역의 수련원에서 연찬회형식의 숙박교육만 진행하고 있다.

불교환경교육원에서 진행하던 교육들이 지금은 불교적 세계관을 가진 여러 단체들(불교환경연대)에서 나누어져서 진행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재가참여불교연대,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등 불교환경교육원은 한살림, 김지하를 뿌리로 하는 근본생태주의의 교두보로서 생명운동을 표방한다. 그리고 생태교육과 환경교육을 구분한다. 불교환경교육원의 생태교육은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운동, 생태친화적 대안학교 운동과 맥을 같이하며 한강생태문화학교, 나무학교, 녹색학교같은 환경교육과 병행한다.

<표 2> 제18기 생태학교 : 생태적 삶, 새로운 인간

환경문제의 근본인식 : 생태위기와 생태적 패러다임		
4.20	생명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할 환경문제	유정길(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4.24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지속가능한 NGO의 역할	유재현(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4.27	동양사상에서 바라본 자연인식과 환경문제	송항용(성균관대 유학과 교수)
환경문제와 나 : 생태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5. 1	생명의 물! 수자원의 고갈과 수질오염	정용호(신립청 임업연구원 책임연구원)
5. 4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토정책	김혜정(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5. 8	21세기 생명공학시대와 인간의 미래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5.14	[현장교육] 구멍 뚫린 하늘과 자동차 문화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5.15	일회용사회의 쓰레기문제와 녹색소비자운동	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5.18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살맛 나는 마을 만들기	김기현(한국YMCA전국연맹 부장)
5.20	[숙박교육] -21 생태적 삶을 찾아가는 테마기행 : 흙집	최한실(푸른누리공동체 대표)
5.22	더불어 사는 삶, 세상 : 공동체	이남곡(야마기시즘 경향실현지)
5.25	생명을 살리는 대안교육운동 : 열린마음, 작은학교	홍순명(풀무학교 교장)
5.29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 지역화폐운동	이원규(미래를내다보는사람들의 모임 사무국장)
6. 1	거룩한 밥, 거룩한 똥으로 살기	이병철(전국귀농운동본부 본부장)

<표 3> 제 21기 생태학교 :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 - 생태적삶을 위한 녹색화전락

<p>■ 일 시 : 2001. 10. 18 (목) - 11. 19 (월) 매주 월, 목 저녁 7:30</p> <p>■ 대 상 :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분, 환경문제인식을 통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 : 직장인, 대학(원)생, 교사, 주부 등</p> <p>■ 문 의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02-587-8997 / E-mail : ecodong@jungto.org)</p>

☑ **맑은 마음 : 이제 환경에서 생명으로**

- 10.18(목) 생태적 위기와 생명문화의 철학- 유정길(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 10.22(월) 인간, 사회, 자연의 위기인식과 수행자의 삶- 유 수(스님, 정토법당 원장)
- 10.25(목) 발전의 환상을 넘어 생태지향적 사고를 위하여- 권혁범(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좋은 벗들 : 생태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 10.28(일) 현장체험 :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만남- 정병준(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 10.29(월) 지속가능한 사회로서의 공동체운동과 삶의 양식- 최한실(푸른누리공동체 대표)
- 11. 1(목) 속도전쟁의 현대문명과 슬로우푸드운동- 김종덕(경남대 사회과학부 교수)
- 11. 5(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그림자 : 쓰레기문제- 오용선(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 11. 8(목) 생태도시와 에너지대안을 찾아서- 이필렬(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 11.11(일) 현장체험 :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와 광역리사이클- 박창수(한삼바이오텍 대표)

☑ **깨끗한 땅 : 친환경적 삶을 위하여**

- 11.12(월) 흙의 마음과 완전한 자립의 삶- 김준권(농부)
- 11.15(목) 물질문명의 경제적 효율성에서 생태적 합리성으로 - 원경선(한삼회 회장)
- 11.19(월) 밥 한 톨의 깨달음, 마음의 생태학- 박수일(법사,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 안내자)

환경운동연합은 그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 때부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1988~1992년에 연 2회 '배움마당'이 열렸는데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활동가 양성이 큰 목표중의 하나였다. 1993년 공추련이 전국의 8개 주요 환경단체와 통합해 출범한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민중지향노선을 보다는 넓은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을 포용했다. 환경연합은 환경연수원을 만들고 시민환경대학을 설치해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열었다. 시민환경학교는 이후의 환경연합에서 환경교육센터로 분리 독립하는 씨앗이 되었다.

시민환경학교는 1997년 17기로 끝날 때까지 수요환경교실과 함께 계속되었다. 그리고 다시 2001년에 18기로 시민환경학교를 개설했고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어린이 환경교육활동은 주말 어린이환경학교로부터 시작해 현재는 제 40기에 이르는 여름·겨울의 환경캠프활동과 푸름이국토환경탐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994년 만들어져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어린이 환경소식지 「푸름이」는 2004년 현재 통권 127호를 냈으며 회원 확장에 큰 몫을 했다. 어린이 '푸름이 기자단'이 스스로 모임과 활동을 하면서 소식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2001년부터는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한 어린이와 가족 대상의 환경교실을 매월 1회 이상 열고 있다. 2004년 12월 현재 25기까지 진행되었다. 이의 주제는 에너지, 재활용, 숲, 하천 등의 주제별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노인, 주부, 대학생 등 대상으로 한 환경학교도 동시에 운영되었다. 50개 지역조직에서도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과 프로그램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강의식 교육인 환경전문강좌도 주목을 끌었다. 이전에는 환경과 과학, 환경과 철학, 환경과

문학, 환경과 경제, 환경과 화학, 환경운동의 이념 등이 그 주제였고 강의식 교육이 주였으나, 2002년부터는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현장활동가들의 운동 내용을 담아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표 4> 제2기 환경전문강좌 : 환경과 철학 1994.9.17 - 12.10

9. 17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	이태수 (서울대 철학과)
9. 24	생태학적 윤리학의 과제	진교훈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10. 8	생명철학과 환경문제	윤구병 (충북대 철학과)
10. 15	그리스도교와 환경위기	박종대 (서강대 철학과)
10. 22	중국철학에서 본 환경문제	이광호 (한림대 철학과)
10. 29	불교의 자연관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11. 5	동서의 자연개념과 생태학	박상환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11. 12	마르크스주의의 환경관	이상훈 (대진대 철학과)
11. 19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환경문제	박정순 (연세대 철학과)
11. 26	하이데거의 현대기술 비판	이기상 (외국어대 철학과)
12. 3	환경문제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이해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12. 10	종합토론	송상용 (한림대 사학과, 시민환경대학장)

<표 5> 제8기 환경전문강좌 : 2003. 9. 18.~11. 2.

	일 자	주 제
1강	9/18(수)	오리엔테이션, 도입 -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공유, 주제선택, 친밀감 형성, 민주시민교육 소개
2강	9/25(수)	국토와 환경(1) - 동강댐 백지화 및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골프장 반대운동
3강	9/28(토)	동강댐 현장방문 및 들꽃생태기행 (강원 영월)
4강	10/ 2(수)	국토와 환경(2) - 새만금 등 간척사업반대운동
5강	10/ 5(토)	새만금 방조제 견학 및 갯벌체험 (전북 부안)
6강	10/16(수)	핵과 환경불평등
7강	10/19(토)	핵발전소 답사 및 지역주민 간담회 (경북 월성)
8강	10/23(수)	에너지와 환경 - 생태사회와 재생가능에너지
9강	10/26(토)	풍력발전시설 현장방문 (난지도 생태공원)
10강	10/30(수)	환경과 정치 - 녹색차지운동
11강	11/ 1(금)	환경호르몬 추방 및 먹거리 운동
12강	~ 11/ 2(토)	유기농, 생태공동체 체험 (홍성풀무학교)
	(위크샵)	평가회 및 수료식

<표 6> 제 10기 환경전문강좌 :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2004. 10. 12.~11. 30.

차시	날짜	주 제	강 사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1강	10/12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권호장(단국대 의대)
2강	10/19	오염된 공기에 몸도 아프다 [대기오염과 환경]	임신예
3강	10/26	식품 오염에 몸도 아프다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	이지은(한국건강연대)
4강	11/ 2	기후변화에 몸도 아프다 [변화하는 기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전상일(eandh 컨설팅)
5강	11/ 9	물 오염에 몸도 아프다 [불평등한 물!!]	황대호(서울보건대학원)
6강	11/16	전자파오염에 몸도 아프다 [전자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최예용(시민환경연구소)
7강	11/23	화학물질 오염에 몸도 아프다 [화학물질 오염농도 낮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강태선(농촌진흥청)
8강	11/30	환경권리는 인권이다	여영학(변호사)

2000년에 환경교육센터가 발족하면서 환경운동연합의 교육활동은 새 전기를 맞았다. 교실수업이 현장체험활동으로 바뀐 것이 중요한 변화이다. 주말농장, 갯벌 체험, 들꽃기행, 탐조여행, 현장탐사활동 등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01년 문을 연 생태교육관은 이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어린이들의 견학, 체험교육이 지속적으로 가까운 거리인 서울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속성 등으로 재정적으로도 안정화 되었고, 물적기반이 어느정도 마련되자 프로그램 개발과 표준화된 교재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함으로 스스로의 철학적 기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하에 있는 시민환경연구소로부터 전문가, 교육자료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시민환경정보센터는 문헌, 사진, 비디오자료를 제공한다. 에너지교육은 에너지 대안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활동가 교육은 시민환경연구소와의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다.

2000년 전후로 일반인과 시민교육의 주요한 교육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안내자 교육은 교사와 일반인 그리고 안내자들로 대상을 달리하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도 특히 일반인들과 교사들 그리고 안내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우리 궁궐의 나무알기' 교육은 일년에 2기씩 각 기수별로 5~6회의 교육으로 3년 째 6기를 진행하고 있다. 각 기수별로 대략 연인원 360명 정도에 시간은 100여 시간을 진행해왔다.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현장중심적이고 특정 주제나 특정 그룹에 맞추어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7> 제16기 환경교실 :

회차	월/일	시간	주 제	형 식	내 용	장 소	준비물
제1강	12/7 (토)	15:00 ~17:00	한강따라 누가 오나 요?	시청각 교육	철새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강과 철새이야기	환경운동연합 생태교육관	필기도구
제2강	12/15 (일)	10:00 ~17:00	아무데서나 살진 않 아요	현장 교육	반구정에서 만나는 철새 이야기	파주 반구정	도시락, 물,망원경
				놀이	철새 놀이판을 이용한 철 새놀이		
제3강	12/21 (토)	15:00 ~17:00	새가되어 세상보기	현장 교육	밤섬에 날아오는 새 만나 기	밤섬	도시락, 물,망원경
제4강	12/28 (토)	15:00 ~17:00	새처럼 자유롭게, 지킬 것은 지키며.	정리 교육	철새와 우리를 만나면.. 한달을 돌아보며	환경운동연합 생태교육관	필기도구

<표 8> 제 2기 궁궐의 우리나라 알기

회차	날짜	교육내용 및 장소	강사	준비물
제1강	9. 7 (토)	프로그램 개요 우리 궁궐 나무의 특징 사직공원 생태탐사와 나무액자 만들기	박상진(경북대 임산공학과 교수 「궁궐의 우리 나무」 저자) 이미애(회원, 에코가이드)	자료집, 나무이름표, 명부록, 현수막, 책, 나무액자 만들기 재료
제2강	9.14 (토)	경복궁의 우리 나무	고동석(생명의 숲) 구자춘(서울대 산림자원학과) 이미애(회원, 에코가이드)	명부록, 자료집
제3강	9.28 (토)	창덕궁의 우리 나무	고동석(생명의 숲) 구자춘(서울대 산림자원학과) 이미애(회원, 에코가이드)	명부록, 자료집 색연필
제4강	10.12 (토)	창경궁의 우리 나무	고동석(생명의 숲) 구자춘(서울대 산림자원학과) 이미애(회원, 에코가이드)	명부록, 자료집 색연필
제5강	10.26 (토)	종묘의 우리 나무 수료식	고동석(생명의 숲)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이미애(회원, 에코가이드)	명부록, 자료집 싸인펜

3. 환경교육의 과제

한국의 학교환경교육은 20여년의 노력 끝에 제도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실을 다시는 것이다. 학교환경교육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교육환경, 사회환경이 온통 성장, 개발 지향으로 치닫는데서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도구 과목과의 갈등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대학에 환경학과는 넘치나 환경교육 전문가는 드물다. 환경교육은 과학교육, 사회교육에서 부전공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교육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환경전담 교수들 기르고 일반 교사들에게 환경교육을 시켜야 한다. 환경교육 전문가를 만드는 데도, 환경교육을 올바르게 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환경교육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95년 부산에서 50여 교사들이 시작한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 교사 모임이 천 여명의 회원으로 자라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전문학회들도 늘어가고 있다. 한국 환경교육학회(1989), 한국환경철학회(1994), 한국환경사회학회(2000), 환경과 문학회(2001), 환경생명학회(2004)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많은 동아리와 연구모임이 있다. 환경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인데 인문사회과학의 적극 참여는 크게 고무해야 할 경향이다.

사회환경교육에도 문제는 많다. 시민단체들의 시민대상 환경강좌는 1990년대 초에 인기가 있었으나 책이나 언론,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쉬워지자 수강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 결과 많은 단체들이 환경강좌를 열지 않고 있다.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으나 그 후신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없다. 이 이후 다시 이름을 바꾼 환경정의는 환경 호르몬과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을 펼치는 '다지사'모임에서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녹색연합과 그린패밀리도 초기에는 환경교육에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일년에 몇차례 진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표 8> 제4회 『다음지킴이 환경학교』

제4회 『다음지킴이 환경학교』 - 폭력없는 출산, 아이 키우기		
다음지킴이 환경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누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엄마들이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우리 엄마들이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하고 있는 지금의 방법이 아이에게 과연 이로운 것인지 알아봅니다. 다음지킴이 환경학교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생각과 고민을 가진 엄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수요일, 10시 30분-12시		
제 1강	10.13	숨뚛 숨뚛 애 잘 낳기
제 2강	10.20	살아 펄펄 뛰는 아이로 키우는 법
제 3강	10.27	집안이 더 위험하다! - 생활속 유해물질
제 4강	11. 3	패스트푸드, 비만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제 5강	11.10	[실습] 생각보다 쉬운 간식 만들기

사회환경교육이 현장체험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학습은 이론 교육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강좌는 다시 살려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판에 박은 듯한 강의는 곤란하고 참신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론적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철학에 대한 교육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어떤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방법론적인 고민이 교육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의와 교재 개발에 특별한 노력이 요청된다. 개별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현장교육 중심의 자료집으로 만의 형태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재로 환경교육의 철학부분이 포함되는 교재의 개발과 사용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외국 환경단체들과 긴밀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교육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몇 차례 국제회의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환경교육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회환경교육에도 재정문제가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협찬을 받거나 피교육자 부담으로 환경교육을 해왔다. 여기에도 공공재정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는 예전에 비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재단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를 먼저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한 교육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활동과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정하고 그 계획에 의해 맞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기획하는 것이 먼저이다.

사회환경교육이나 학교 환경교육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환경교육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이 단순히 교육자체의 행위를 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으로 인한 참여자들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 변화는 일상생활의 변화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먼저 의식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인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 두 번의 행사에 참여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개발의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두 번의 행사식 프로그램이 있다면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주제별, 대상별 프로그램 등으로 참여자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참여자들과의 의사소통 구조와 공간을 마련하고 그에 맞게 기획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는 환경교육 분야를 전문부설기관으로 독립함으로써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재정까지 독립을 한 이후에는 사단법인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개별 시민사회단체의 특성상 운동적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묻혀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있는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도완, 한국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1996.
- 김남일, 김왕근, 노경주, 이대형, 이면우, 추병완, 인간·환경·교육, 춘천교육대학교 출판부, 2000.
- 김동규 편, 세계의 환경교육, 교육과학사, 1996.
- 김명자,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동아출판사, 1991.
- “대학 환경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유네스코 워킹그룹,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3. 12.
- “사회환경교육의 현황과 전망”, 2001 제4차 환경교육 국제심포지움,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주선회, 2001. 9.
-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오늘과 내일”, 2001 한강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한강되살리기-환경, 정책, 교육.
- 세계 주요국 환경교육 동향과 실천, 環境教育, 第四卷, 1993. 8.
- 송상용, “환경위기의 뿌리”, 철학과 현실, 1990, 여름, 18-35.
- 신세호 편, 환경교육, 삼화서적, 1977.
- 신세호, 최석진, 권치순, 최돈형, 조난심, 한국 환경교육의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환경과학연구협의회, 1987.
- 이기명, “생활 속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안”, 환경리포트, 1992.11-12.
- 이양숙, “유네스코 협동학교와 환경교육”, 유네스코 뉴스, 제463호, 1992. 9, 14-17.
- 최병선 외, 민간 환경보전활동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처, 1993.
- 崔錫珍, “學校環境教育의 役割과 指向方向”, ESSD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 심포지엄,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3.
- 최 열, “환경과 자원보전을 위한 청소년활동”, 청년연구, 제15집, 1992, 79-98.
- 한국환경교육학회 편, 韓國의 環境教育, 교육과학사, 1990.
- 한독 환경교육 학술회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89.
- 한영 환경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1992.
- 효과적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정책 연구, 환경청, 1982.
- “환경교육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환경교육 국제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9.
- 환경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환경청, 1983.
- 사회환경교육활성화방안, 2001, 시민환경연구소.